

구매패턴변화에 따른 상업공간의 시설변환 방향에 대한 고찰

- 할인점과 백화점 및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mmercial Space Plan through Change of Purchasing

- Focused on the Discount Store and Department Store and Multiplus -

Author 김오성 Kim, Oh-Sung / 정희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부 박사과정
이명식 Lee, Myung-Sik / 정희원,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Abstract Domestic distribution environment in Korea has rapidly and qualitatively been developed due to the open of distribution market. However, the function of commercial establishment goes beyond the place value that simple transaction of capacity takes place, and it is recognized as life groove space enhancing the satisfaction of costumers' purchasing pattern.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the need to change the purchasing environment of commercial space. The change factors of commercial spac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consumption identity formed by change of consumers' lifestyle and the purchasing pattern. It is necessary to see the change factors of the purchasing pattern as the conversion of distribution environment in terms of supplier and as the change of consumers' lifestyle in terms of consumers. In reality, however, the commercial facility ill-imitated the advanced model and qualitatively was developed. In this situation, the change of the purchasing pattern according to the conversion of facility is needed as an early s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verflow supply of commercial facility. Also It will discuss the plan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space conversion of facility conforming to the change of the purchasing pattern that is predicted in the lifestyle on a conversion stage of facility.

Keywords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의 변환
Change of lifestyle, Development of program, Conversion of facility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재래시장의 영세한 소매점포와 대도심에 위치한 소수의 백화점 및 중소규모의 슈퍼마켓에 의존해오던 국내 유통환경은 유통시장의 개방에 힘입어 선진업체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계기로 급속하게 양적인 성장을 이루며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시장개방화의 영향으로 유통 서비스 산업구조가 선진 국형으로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국내유통시장은 시설 규모의 확장을 선행한 후에 구매심리를 자극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중심의 성장 배경을 안고 있다. 이러한 소비문화 선도형 유통구조는 90년대 후반 경제활란기와 최근의 글로벌 경기위기를 맞아 계획구매와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생존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기능이 단순한 재화의 거래만 이루 어지던 장소적 가치에서 생활영위공간으로 바뀜에 따라 상업공간의 구성계획이 소비자의 만족지수를 높이기 위한 몰입환경과 체험환경 조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점객을 유인하기 위한 키테넌트의 복합배열과 상업공간의 융합이라는 규모 확장만으로는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만족지수를 높일 수 없다.

상업공간의 시설변환 필요 요인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구매패턴에서 기인한 소비의 정체성 확립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풍족한 물자 및 정보의 잉여 속에서 성장한 소비의 중심계층은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구속이나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개성 있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구매패턴으로 분화되어 상업공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¹⁾

1) 김영신, 소비자와 시장환경, 시그마프레스, 2007, p.40

